

에너지와 中産層

지난 '70년대말 이른바 제2차 石油波動 여파로 석유류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기만 하고 있을 때 일이다.

당시 우리나라의 여느 家庭처럼 우리집은 구명탄으로 취사를 겸한 暖房燃料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온통 나라 안팎을 뒤흔든 石油波動도 『강 건너 불』 쯤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가 하면 구명탄의 질이 떨어진 탓이었던지 구명탄의 연소 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불이 자주 꺼지는 바람에 온 식구가 연탄 불같이 시간 맞추기에 온 신경을 곤두세워야 했었다.

나는 아이들에게 責任感과 自立心을 길러줄 겸하여 그당시 中3, 高2에 在學中인 남매에게 자기 방과 난로까지 여섯 아궁이의 연탄 갈이를 나누어 각자 責任지도록 했었다. 처음 얼마동안은 불꺼진 연탄에 불을 붙이느라 몹씨 애를 먹더니 곧 익숙해진 아이들을 지켜보면서 대견스럽게 여기고 있던 참이었다.

어느날 中3 녀석이 제 누나에게 “요즈음은 연탄 불을 갈고 나면 머리가 멍하게 아프고 연탄가는 시간에 신경이 쓰여져 공부도 집중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연탄갈이를 보이콧하길 은근히 부추기는 눈치였다.

아이들의 이런 압력이 있는 후 우리집 연탄갈이는 자연 내차지가 되고 말았다. 최소한 하루 한아궁이에 두 세차례씩 즉, 退勤後와 새벽녘마다 부엌과 아이들방을 번갈아 오가며 연탄과 씨름을 하였다. 그러기를 몇년, 그동안 나는 기름보일러의 편이성을 항상 선망해 왔었다.

그러던 중, 마침내 소박한 나의 所望은 이루어져

지하실에 기름보일러가 設置되어 있는 지금의 집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

그러나 곧 나는 새로운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그토록 선망했던 편리한 기름보일러가 나를 우울하게 만들 줄이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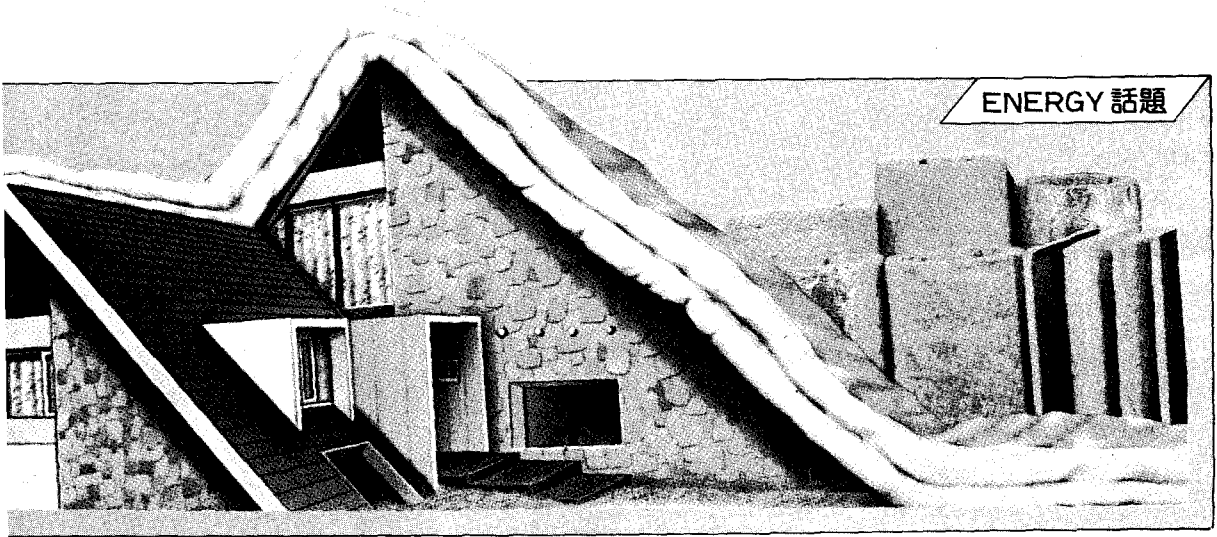
방안에서 보일러의 稼動 스위치만 넣고 있으면 금방 더워오는 그 편리하다는 기분이 채 가시기도 전에 보일러 버너로부터 기름이 분사되며 燃燒되는 소리가 나에게서는 흡사 1천원권 지폐가 한다발씩 마구 타 들어가는 듯해서 마음을 조이게 하였다.

그 무렵 우리나라의 經濟는 高油價, 高金利, 高物價의 이른바 「3重高」에 시달리고 있던 때 였으므로 일반 家庭에서는 기름을 마음놓고 풍족하게 사용할 수 없었던 것이다.

급기야 나는 家族會議에서 보일러의 가동시간과 시간대를 엄격히 제한하게 되었고, 그 해 겨울에는 補助暖房 수단으로 마루방에는 연탄난로를, 각방에는 전기담요를 장만하는 등 暖房燃料費 절약을 위한 비상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그러나 零下의 겨울철에 이러한 보일러의 가동시간 제한이 잘 지켜질리 만무했고 실내난로마저 하루에 최소한 연탄 3~4장은 갈아 넣어야만 했었다. 게다가 전력요금 또한 月1만원 未滿이던 것이 전기담요를 사용하고 나서 부터는 月3만원 이상 경충 뛰어 올랐다. 결국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고 난 뒤부터는 본의 아니게 새로운 浪費를 초래한 꼴이 되고 말았다.

마침내 우리집의 빛나간 燃料費 節約 비상조치를 해제하게 되었으며 그 배경은 크게 두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다.



첫째는 內的要因으로써 주택단열시공과 태양에너지이용, 온수급탕기를 설치함으로써 住宅熱管理의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한 것이고, 둘째는 外的要因으로써 油價下落, 經濟成長, 物價安定 등으로 家計의 실질소득이 증가한 것이라 나름대로 분석해 보았다.

당시 우리집은 '73年度에 건축된 2層 콘크리트 슬라브구조인데 단열이 전혀 안된 탓으로 여름에는 한증막같이 더웠고, 겨울은 외풍이 심하여 보일러를 3시간정도 가동해야 겨우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상태였다.

그러던 차에 마침 政府에서 미단열 기존주택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는 주택단열자금 500만원(年利 10%, 3년거치, 5년분할상환)을 國民銀行으로부터 대출받아 방마다 온수배관 施工을 비롯하여 집 전체를 단열 시공하게 되었다. 덕분에 외풍이 없어졌고 한번 덥혀진 집안의 공기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항상 室內가 훈훈하였고 보일러 가동시간도 1時間 정도면 暖房이 되었기 때문에 燃料費도 절반정도 節約이 가능했다.

그후 주택단열에 효과를 본 우리집은 太陽熱利用에도 관심을 갖게 되어 बै치(Batch)형 온수급탕기를 설치하여 보일러를 가동하지 않는 봄, 여름, 가을철에 溫水를 부담없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油價動向을 살펴보면 '86年 2月 20日을 고비로 '88年 11月 2日까지 여섯 차례 단행된 평균인하률은 무려 45.9%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우리 家計에 상당한 보탬이 되고 있으며, 1천원권 지폐등치가 마구타는 듯한 심리적 부담도 없어졌지만 그대신

에너지節約에 대한 감각이 둔화됨으로써 부지중에 過消費 경향이 만연되는 것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었다.

經濟企劃院이 발표한 "'88年 韓國社會指標"에 의하면 자기 스스로 「中産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전국민의 60%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그간의 우리나라의 經濟成長에 의하여 中産層의 意識水準이 높아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높은 中産層의 意識과 所得水準 향상으로 우리나라 家庭에너지 消費構造가 편리한 에너지쪽으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薪炭 및 연탄등의 열등에너지(Dirty Energy)로부터 石油類, 가스, 電力등 사용하기에 편리하고 청결한 고급에너지(Clean Energy)로 수요패턴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은 1인당 國民所得 4천불 시대를 막 넘어서면서 성급한 면도 없지 않으나 생활의 편의성, 文化生活 추구에 대한 人間欲求 증대로 필연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家庭에너지 消費構造 변화추세는 앞으로 도시가스 및 가전제품 등의 普及增大에 냉난방 및 취사형태가 좀더 편리하고 문화생활 쪽으로 확대될 것으로 진단되고 있기 때문에 家庭에너지의 절대량도 매년 더욱 증가될 것이 틀림없다.

이와 같은 에너지環境의 변화추세와 여건하에서 우리의 住居生活이 더 많은 中産層型으로 접근하려면 문화생활의 척도라 할 수 있는 주택의 熱管理問題가 원천적, 합리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에너지節約이 무조건 안쓰고 아끼는 자린고비식이 되어서도 곤란하지만 낭비나 과소비는 더 더욱 경계해야 할 것이다.